

장흥군, 미식관광 활성화로 500만 관광객 유치한다

토요시장 먹거리 골목, 한식 체험관 조성 등 추진 논의 김성 군수 “지역 특산물 연계한 미식관광 상품 개발할 것”

장흥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추진한다. 최근 관광지 선택의 주요 요소로 '미식, 식도락, 맛집' 등의 키워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장흥군은 이같은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15일 첫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미식관광 관련 업무별 사업추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9개 부서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토요시장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 한식 체험관 조성,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장흥 맛집 육성, 장흥 특화표고빵

개발 등의 의견들이 논의됐다. 맛 칼럼니스트, 유명 셰프, 여행작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식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계절, 테마, 다채널 미식투어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최근 미식관광에 대한 관심이 광장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특산물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캘리그래피 공모전 성료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캘리그래피 공모전이 성황리에 종료되어 수상작 전시회를 갖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해남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작품을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5월 작품 접수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270명이 422작품을 응모, 전문가의 엄격한 현상심사를 거쳐 총 3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일반부 대상은 김윤아씨(경남 김해), 학생부 대상은 김윤이 학생(경남 통영)이 차지했다. 두 수상자 모두 김남주 시인의 '별시' 작품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였다. 김윤아 씨의 수상작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푸른 밤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와 부드러운 글씨체로 그리움을 잘 표현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김윤이 학생 역시 안정적인 구도와 가독성으로 캘리그래피의 맛과 즐거움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작은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땅끝순례문학관 기획전실에서 특별전시회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문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전시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응모해 주신 캘리그래피 애호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캘리그래피와 시문학이 어우러지는 서정적인 시각 예술을 통해 시문학의 고장 해남을 다시 한 번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시스템 구축 완료

완도군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wando.dadoea.kr'를 입력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에는 권역별,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길 찾기 기능 등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별 아이콘을 적용하여 관광지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하여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 육아수당의 힘, 출생등록자 수 늘었다

2022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출생아 59→83명 40% 증가



민선 8기 강진군이 역점 시행 중인 육아수당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 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

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3명이 출생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육아수당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진원 군수의 특성과 의회의 협조로 탄생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도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 원, 만 1세까지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군은 또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부의료비 3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 원을 각각 해당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 원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126만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6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고군면 연동리·향동리·조도면 나배도리

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고군면 연동리와 향동리 ▲조도면 나배도리 3개 마을에 생활 인프라 확충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30가구 이상의 마을이 대상이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사업을 통해 빈집·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해 위험지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 마을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 공동체 활성화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인구감소 대응과 함께 군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살고 싶은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